광주의 새 야구장 기공식이 24일 오후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구본능 KBO 총재를 비롯 광주지역 초·중·고·대학 야구 선수, KIA 타이거즈 선수 및 시민 5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2013년 완공 광주 새 야구장 어떻게 지어지나

국내 첫 지그재그 좌석… 외야엔 잔디석

내년 2월 착공… 2만2000석 규모 건립
대형로비 설치 이동중에도 관람 가능
여성 화장실 넓히고 장애인 시설 확충
박진감 넘치게 16도 각도 접시형 구조

광주시민과 야구팬들의 오랜 숙원인 새 야구장 건립 사업이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됐다.

2만2000석 규모로 건립될 새 야구장은 이달 말 무등경기장 축구장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3년 말까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4년 프로야구 시즌부터는 새로운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새 야구장은 문화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친환경적으로 건립되는 게 특징이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야구장의 방향은 기존 야구장과 달리 동북쪽을 향하도록 돼 있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야구규칙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며, 광주시가 KBO에 공식적으로 조언을 요청해 결정됐다.

관람석은 국내 다른 야구장과 달리 관람석의 각도가 16도의 완만한 접시형 모양을 갖추게되며, 관람석 의자는 국내 최초로 앞뒤가 지그재그로 배치돼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관람석이 경기장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 배치돼 박진감 넘치는 경기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카이박스 30실을 비롯한 외야 잔디석 등 다양한 이벤트 좌석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국내 최초로 중앙 콘코스(Concourse·대형 로비)를 설치해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동 중에도 경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야구팬이 증가함에 따라 새 야구장에는 수유실과 유아 놀이방 등이 설치되고, 여성 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1.7배 규모로 넓어진다. 이밖에 장애인 전용석 168석과 전용주차장,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장애인도 새 야구장에서는 쉽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설비와 함께 선수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눈에 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빗물 이용설비, 지열이용시스템, LED 조명 등이 도입되며, 홈팀 선수들은 물론 원정팀 선수들을 위한 각종 선수 편익시설과 화장실 등이 독립적으로 확보됐다.

새 야구장에는 야구 박물관도 들어선다. 기존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철거하지 않고 보존되는 성화대 하부공간이 야구 박물관 및 역사관으로 리모델링 된다. 이곳에는 다양한 콘텐츠와 타이거즈 소장 물품들이 전시돼 앞으로 광주의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야구장 건립과정에 시민 감독관들이 공사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주인인 야구장 건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4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각급 기관 및 기아자동차·KBO 관계자, 광주지역 초·중·고와 대학 야구부 선수, 해태(기아) 타이거즈 출신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기공식 축사를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광주야구장은 아시아 최고 시설로 지어지고, 시민을 위한 경기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내준 광주시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 앞서 KIA 타이거즈 김상현, 나지완, 차일목 등이 팬 사인회를 열었으며, 벨리 댄스 등 축하공연이 열렸다. 이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하주완(8), 김슬지(여·19), 류권형(37), 노명혜(여·49), 최상옥(84)씨 등 시민대표 5명이 발파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 야구장 조감도

중앙 콘코스(대형 로비)

내부 단면도

전남도의회 '내년 F1대회 개최' 공방

행정사무감사 "매년 600억 적자 꼭 치러야 하나"
주동식 본부장 "FOM과 협상 결과 따라 판단 할 것"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내년 개최 여부가 안갯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F1 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의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과의 개최권료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전남도의회가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주동식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은 "협상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박원화 KAVO 대표는 박준영 지사와 버니 회장의 만남을 '협상'이 아닌, '요청'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열고 F1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대회 지속 여부를 놓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박철홍(민주·담양 1)의원은 "도지사가 3~4년 뒤에는 적자폭을 줄여 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매년 6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대회를 열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주동식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은 "(대회 개최 여부를) 협상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칫 협상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내년 대회 개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주 본부장은 그러나 오후까지 이어진 감사에서는 "재협상이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대회를 치른다는 전제 아래 세부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김옥기(민주·나주 2) 의원도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 대회 개최비용으로 144억 원을 세워줬는데 FTA 파문으로 이마저도 날아갈 위기"라며 "도의회가 예산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내년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정부 홀대를 받아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 올리겠다며 수천억 예산 쏟아부어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박 지사와 버니 회장의 '협상'결과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박원화 KAVO 대표는 이번 협상과 관련, 대회운영법인 대표로서의 역할을 따져 묻는 박철홍 의원에게 "주고받는 게 협상인데,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일방적 요청"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향후 부정적 결과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F1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치르면서 모두 598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전체적인 적자 규모는 지난해 725억원보다 127억원이 감소했다. 또 올해 대회 관람객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32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2010년 F1 대회 수지분석

	개요	2011	2010
지출	개최권료	484억	381억
	TV중계권료	148억	147억
	운영비	259억	373억
	부가가치세	22억	18억
	계	913억	919억
수입	입장권	179억	152억
	TV중계권료	33억	17억
	스폰서십 등	32억	25억
	국비	1억	
	스포츠토토	44억	
	2010잉여금	22억	
	잡수입	4억	
	계	244억	194억
수지(B-A)		598억 적자	725억 적자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힘모은다

오늘 22개 시장·군수 협력논의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25일 박준영 전남지사 주재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시장·군수 간담회를 갖고 여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수박람회의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홍보와 범도민 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숙박·교통대책 수립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다.

이들은 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공동협력 방안을 비롯해 테마 관광상품 개발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방문 유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누굴 위한 국회인지 조차 의심스럽다